

미 증시, 시총상위 기술주 중심으로 이틀 연속 반등에 성공

SUMMARY

- 미 증시 부동산(+1.8%), 경기소비재(+1.4%), IT(+1.2%) 등 경기민감 업종 강세, 침체 우려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
- 8월 CPI는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는 것이 시장에는 베스트 시나리오
- 장중 진행될 미 대선 토론 영향에 관련 테마주 중심으로 변동성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

미국 증시 리뷰

10 일(화) 미국 증시는 특별한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엔비디아, 테슬라 등 시총상위 기술주 이틀연속 강세 보이며 지수 상승 견인. 대형은행 지급준비율 추가인상, JP 모건(-5.21%)의 이익 가이던스 하향 등 대형은행주의 급락으로 다우 지수만이 약세. (다우 -0.23%, S&P500 +0.45%, 나스닥 +0.84%, 러셀 2000 -0.02%)

미국 하원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겨냥한 '생물보안법안'(Biosecure Act)을 찬성 306, 반대 81로 최종 통과. 미국 상원을 통과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 제정이 이루어질 예정. 상원에서도 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통과가 가까워졌다는 분석. 생물보안법안은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생명공학 기업 및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과 계약을 맺거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중국 유전체기업 BGI 지노믹스와 BGI에서 분사한 MGI 테크, MGI의 미국 자회사인 컴플리트 지노믹스, 의약품 CRO(임상수탁)·CDMO(위탁개발생산) 기업인 우시 앱텍,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해당. 법안을 찬성한 하원 의원들은 중국이 생물무기를 개발하거나, 전 세계에서 수집한 생물학적 데이터를 미국 안보에 위협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8월 NFIB 소기업 경기낙관지수는 전월대비 2.5 포인트 하락한 91.2(예상 93.6, 전월 93.7)로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 하위 지수 중 불확실성지수는 전월 90.0 → 92.0으로 상승, 순이익이 악화하고 있다는 순응답 비중은 30% → 37%, 평균 판매가격을 인상했다는 순응답 비중은 22% → 20%로 하락. 집계측은 "역사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기업주들에게 가장 큰 문제로 남아 있으며, 매출 기대가 급락하고 비용 압박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

미국 중앙은행(Fed)과 미국 예금보험공사(FDIC) 등 금융 당국이 미국 대형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 강화 방안을 당초 예상인 19% 대비 완화된 9%로 상향 조정하는 규제안 제안. JP 모간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등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G-SIB)으로 지정된 8개 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자본금 요건을 대폭 상향하고자 했으나 은행들의 반발로 상향폭을 완화. JP 모건(-5.21%)은 금융 컨퍼런스에서 내년 순이자마진(NII)이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는 가이던스를 제시한 영향으로 급락.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미 증시에서 부동산(+1.8%), 경기소비재(+1.4%), IT(+1.2%) 등 경기민감 업종이 강한 반등세를 보이는 것은 침체 우려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 이런 측면에서 8월 CPI는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는 것이 시장에는 베스트 시나리오. 8월 CPI 컨센서스 MOM 0.2%(전월 0.2%), YOY 2.6%(전월 2.9%)로 전월대비 완화, 근원 CPI MOM 0.2%, YOY 3.2%로 모두 전월과 동일할 것으로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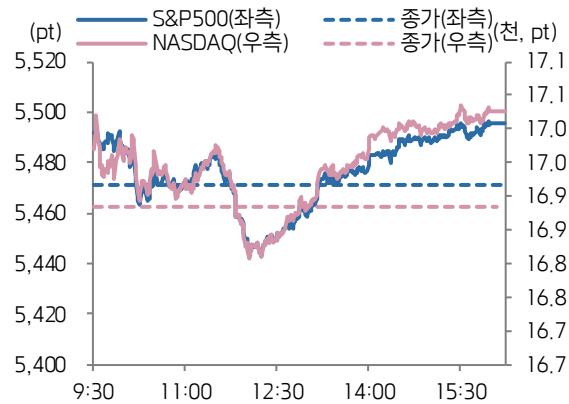
중국 8월 수입 YOY 0.5%(예상 2.5%, 전월 7.2%)로 저조, OPEC+ 월간 보고서에서 중국의 성장 둔화 등을 반영해 올해 세계 석유 수요 전망치를 기준 하루 211 만 배럴에서 203 만 배럴로 하향 조정하는 등 수요둔화 우려가 상존. 이때문에 예상치를 하회할 시 경기침체 우려 확산 및 50bp 인하 가능성 확대, 예상치 상회할 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확산으로 변동성 확대 예상. 전일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은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는 여전히 물가 압력이 크다고 평가하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언급.

10일(화) 국내증시는 기술적 반등 시도에 상승출발 했으나 미대선 토론, CPI 발표 앞둔 경계 심리에 외국인 매도세 확대되며 6 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 (KOSPI -0.49%, KOSDAQ -1.16%)

금일에는 장중 진행될 미 대선 토론 영향에 관련 테마주 중심으로 변동성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 미 대선 TV 토론은 오전 10 시부터 12 시경까지 생방송으로 진행. 직전 대선 토론 직후인 6월 말~7월 중순까지 트럼프 당선 가능성 상승하며 조선, 방산, 건설, 원전주 강세. 해리스 수혜주로 꼽히는 업종은 신재생, 이차전지 업종이며 두후보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업종은 전력기기, 바이오, 반도체. 다만 반도체 및 전기전자, 2차전지 투자심리 악화된 상황으로 정치 이슈만으로 추세적 상승을 만들어내기에는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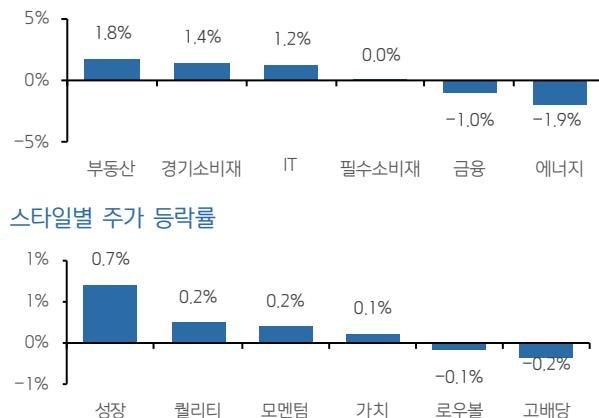
이차전지 업종의 경우 호재와 악재가 상존. 전일 테슬라(4.58%), 리비안(1.15%), 루시드(2.02%) 등 미국 전기차 업종 동반 강세. 도이치은행이 테슬라 목표가를 295 달러로 상향, 중국 주간 판매 호조,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 공식화 등 호재에 긍정적으로 반응. 다만 전일 국내 이차전지 업종 하락요인이었던 2분기 점유율 하락, 미 대선 불확실성 등이 상단을 제한하며 국내까지 온기가 확산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 따라서 생물보안법 통과 호재 존재하는 제약바이오, 기존 주도주인 전력기기, 정치와 상대적으로 무관한 음식료, 화장품, 의료기기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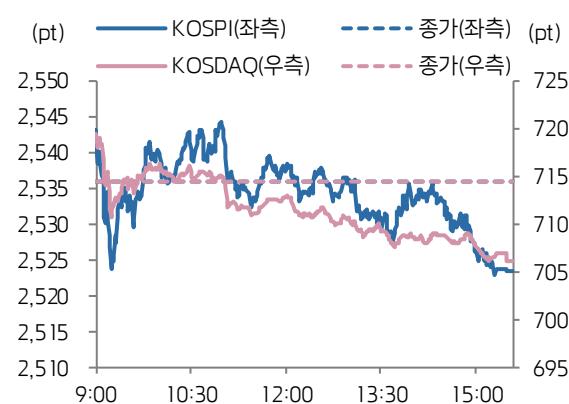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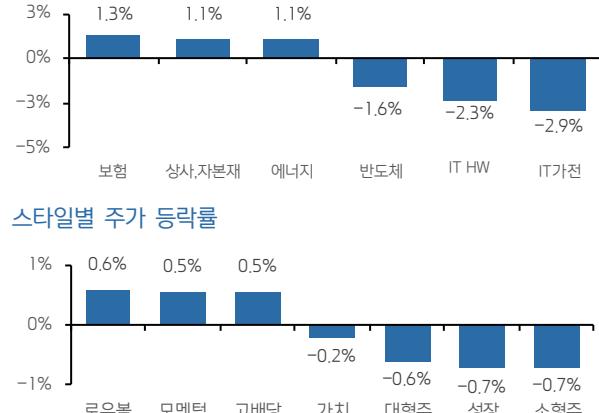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애플	220.11	-0.36%	+14.76%	GM	44.82	-5.44%	+25.79%
마이크로소프트	414.20	+2.09%	+10.75%	일라이릴리	901.25	-0.77%	+55.36%
알파벳	148.66	-0.03%	+6.68%	월마트	78.81	+1.9%	+51.43%
메타	504.79	+0%	+42.91%	JP 모건	205.56	-5.19%	+22.98%
아마존	179.55	+2.37%	+18.17%	엑손모빌	110.82	-3.64%	+13.69%
테슬라	226.17	+4.58%	-8.98%	세브론	138.23	-1.48%	-4.31%
엔비디아	108.10	+1.53%	+118.32%	제너럴일렉트릭	78.81	+1.9%	+51.4%
브로드컴	148.21	+5.25%	+33.76%	캐터필러	334.16	+0.04%	+14.42%
AMD	142.84	+3.39%	-3.1%	보잉	160.07	-1.74%	-38.59%
마이크론	86.85	+0.67%	+1.96%	넥스트에라	82.30	+1.4%	+38.5%
애플	220.11	-0.36%	+14.76%	GM	44.82	-5.44%	+25.7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523.43	-0.49%	-4.97%	USD/KRW	1,344.20	+0.24%	+4.36%
코스피 200	338.48	-0.5%	-5.45%	달러 지수	101.63	+0.08%	+0.29%
코스닥	706.20	-1.16%	-18.51%	EUR/USD	1.10	-0.14%	-0.17%
코스닥 150	1,174.67	-1.6%	-15.7%	USD/CNH	7.14	+0.22%	+0.14%
S&P500	5,495.52	+0.45%	+15.21%	USD/JPY	142.44	-0.52%	+0.99%
NASDAQ	17,025.88	+0.84%	+13.42%	채권시장		가격	DTD(bp)
다우	40,736.96	-0.23%	+8.09%	국고채 3년	2.875	-2bp	-27bp
VIX	19.08	-1.9%	+53.25%	국고채 10년	3.007	-2.3bp	-16.8bp
러셀 2000	2,097.44	-0.02%	+3.47%	미국 국채 2년	3.594	-7.5bp	-65.6bp
필라. 반도체	4,680.67	+1.19%	+12.1%	미국 국채 10년	3.642	-5.8bp	-23.7bp
다우 운송	15,609.12	-0.17%	-1.82%	미국 국채 30년	3.962	-3.8bp	-6.6bp
상해종합	2,744.19	+0.28%	-7.76%	독일 국채 10년	2.131	-3.7bp	+10.7bp
항셍 H	6,026.34	+0.39%	+4.47%	원자재 시장		가격	DTD(%)
인도 SENSEX	81,921.29	+0.44%	+13.4%	WTI	65.75	-4.31%	-7.37%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69.19	-3.69%	-10.19%
Eurostoxx50	4,747.20	-0.66%	+4.99%	금	2,543.10	+0.41%	+17.73%
MSCI 전세계 지수	808.49	+0.14%	+11.21%	은	28.26	-0.12%	+17.32%
MSCI DM 지수	3,552.03	+0.16%	+12.08%	구리	404.05	-1.08%	+3.86%
MSCI EM 지수	1,062.88	-0.05%	+3.82%	BDI	1,958.00	+0.88%	-6.49%
MSCI 한국 ETF	61.28	-0.6%	-6.49%	옥수수	404.25	-0.74%	-19.71%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74.25	+1.01%	-14.16%
비트코인	57,575.27	+0.97%	+35.45%	대두	997.25	-2.04%	-19.95%
이더리움	2,378.06	+1.55%	+4.19%	커피	247.20	+0.73%	+31.28%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9월 10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